

여의도는 전투중 “경제난 극복? 우린 그런것 몰라”

여야, 당리당략 몰두 쟁점법안 극한 대립

상임위 곳곳 파열음 … 국민 따가운 눈총

경제난으로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아랑곳없이 ‘정쟁’에 몰두해 때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2월 임시국회 막바지에 접어든 24일까지 여야는 쟁점법안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극한 대립양상을 보여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23일 노·사·민·정 합의 등 경제난 극복을 위한 각계의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유독 국회에서 양보와 타협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은 쌓여만 가고 있다.

국회는 24일 법제사법, 정무, 행정안전 등 11개 상임위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어 소관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계류법안 심의를 벌였다.

하지만, 26일까지 상임위별 쟁점법안 심의를 마무리하고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하며 직권상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한나라당과, 결사항전 태세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 간 치열한 신경전은 이날도 계속됐다.

미디어법을 다루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

신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과 영화·비디오물의 진흥법 개정안 등 계류 중인 비쟁점법안에 대해서만 논의했다.

정무위는 이날 한나라당 박종희, 민주당 신학용 간사가 금산분리 완화 법안, 출자종액제한 폐지 등 쟁점법안 5개의 소위 회부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으며 법사위에서는 아당이 ‘휴대전화 감청법’으로 명명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상정하기로 했으나, 처리 시기와 내용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에 따라 여야간 극적인 절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상임위 위원의 법안 처리라는 기본전술 외에도 비상계획까지 짐작하는 한편 ‘하드 카드’인 직권상정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주력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직 상정도 안 된 18개 쟁점법안을 오늘 내일 사이 모두 상정해 합



“경제 살려 주세요”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지도부가 24일 한미FTA 국회비준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민주당 국회대표실을 방문한 조석래 전경련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총연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인사하고 있다. 경

제단체장들은 이날 한나라당 지도부도 방문해 정치권이 경제난 극복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의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홍 원내대표는 최근 김형오 국회의장을 만나 직권상정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홍 원내대표가 직권상정 문제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한나라당의 쟁점법안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의원총회와 ‘MB 악법 저지와 용산참사 결의대회’를 잇따라 개최, 당

력을 집중시키는 한편 의원대기령을 내려

비상체계에 돌입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1·6 여야합의’ 내용을 강조한 뒤 “만약 여당이 이를 파기하는 날 우리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가 최대 뇌관인 미디어법 상정의 1차 ‘D데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문방위 사수’에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고홍길 문방위원장이 2

월 국회 내 직권상정 시사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듯한 기색을 보였지만 연막작전일 가능성이 무게를 두고 긴장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소속 의원 및 보좌관 전원에게 문방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대기령을 발효했으며 24시간 대기조도 딴졌다. 원내지도부와 문방위원 간 ‘핫라인’도 가동키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與 쟁점법안 처리 ‘고민 또 고민’

‘야 법안처리 총력 저지’ 타개책 없고

김 의장 직권 상정 수용 여부 미지수

2월 임시국회에서의 ‘2차 법안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여권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민주당과 야권이 언론관계법 등 일부 법안에 대해 총력 저지 입장을 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미瘴할 비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한나라당과 여권에서는 언론관계법 등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김형오 국회의장이 과연 이를 수용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이를 반영하듯 홍준표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약속을 지켜주리라 믿는다”며 직권상정을 우회적으로 암묵한 데 이어, 오후에는 의장실을 직접 찾아와 30여분 가량 직권상정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형오 국회의장은 확답을 피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일단 지방의원 연수 강연에서

에는 어려운 측면이 많다는 점에서 직권상정 카드가 제시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이번에도 언론관계법 등의 중점 법안 처리가 무산된다면 정국 주도권을 상실하는 등 악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직권 상정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는 이어 “직권상정은 다수당의 정당한 권리인 법안처리가 소수당에 의해 꽉 막혀 있을 때 불가피한 조치”라며 “그런 절차를 거쳤느냐 여부가 직권상정을 하느냐 미느냐의 중요한 판단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김 의장의 입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상임위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국민여론 등을 고려해 최후의 수단으로서 직권상정을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김 의장의 직권상정 카드에 대해 실현 가능성에 낮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특히, 언론관련법 등은 2월 임시국회에서

에는 어려운 측면이 많다는 점에서 직권상정 카드가 제시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이번에도 언론관계법 등의 중점 법안 처리가 무산된다면 정국 주도권을 상실하는 등 악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직권 상정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권에서는 김형오 의장의 직권 상정 카드가 무산된다면 물리력을 동원한 본회의 상정 방식에 없다는 입장이나 이는 아당의 극심한 반발 등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2차 입법전쟁에서도 여권이 민주당 등 야권에 밀린다면 주후 정국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여권에서는 언론관계법 등 일부 법안들에 대해 물리력을 등을 동원해서라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uim@kwangju.co.kr

광고접수안내

구분·문전·모집·초빙·영업·모임·매입·매출

일대·전세·부동산

e-mail : dd8111@hanmail.net

직통 : (062) 227-9600

팩스 : (062) 227-9500

분식

분식회원증 분양·매매계약서 분실

회원번호 : 21-0027-00

골프장 : 총홍길드스파&리조트

회원증 : 김 충석

상기 총동 회원증 분양·매매

계약서를 분실공고합니다.

전의경 및 경찰행정학과 특제/남·여 순경 공채

개강 3월 2일(종합 및 문제풀이)

※ 학적 시스템

6개 월과정

2개월 완성 3회 단기 학습

영어 기본이 된 수강생 학습

수강료 교재 25% D/C

1년과정

2개월 완성 6회 단기 학습

영어 기본이 된 수강생 학습

수강료 교재 50% D/C 교재 25% D/C

경찰

전국 최강의 교수진
합격 보장! 전문 시스템
원장 안명선

순경공채

남·1차: 966명

여·1차: 40명

101단·1차: 120명

2차: 214명

여·2차: 47명

2차: 120명

전경 특제 240명

경찰 행정학과 특제 100명

경찰 특공대 특제 38명

※ 종합 1기월 : 16만원 · 문제풀이 1기월 : 13만원 · 단과 : 9만원

경 전 문 메가경찰학원 www.gmega.co.kr 226-5050

화순군 광고 제2009 - 128호

창궁지구 전용마을 조성사업

사전환경검토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창궁지구 전용마을 조성사업 미집행부지구역에 따른 사전환경검토서(초안)에 대하여 주민의 관심수렴 및 설명회 등을 위해 창궁지구(법 제2조 및 제29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한다.

2009년 2월 25일

화순군수

1. 사업개요

사업명 : 창궁지구 전용마을 조성사업

사업장소 : 화순군 창궁면 창궁리 1155번지

사업기간 : 2009년 2월 25일 ~ 2010년 6월 30일

사업내용 : 창궁지구 전용마을 조성사업

사업주 : 화순군수

사업비 : 200억 원

사업자 : 화순군수

사업자주소 : 화순군 창궁면 창궁리 1155번지

사업자전화 : 055-379-3777

사업자fax : 055-379-3777

사업자이메일 : 화순군수@naver.com

사업자주소 : 화순군 창궁면 창궁리 1155번지

사업자전화 : 055-379-3777

사업자fax : 055-379-3777

사업자이메일 : 화순군수@naver.com

사업자주소 : 화순군 창궁면 창궁리 1155번지

사업자전화 : 055-379-3777

사업자fax : 055-379-3777

사업자이메일 : 화순군수@naver.com

사업자주소 : 화순군 창궁면 창궁리 1155번지

사업자전화 : 055-379-3777

사업자fax : 055-379-3777

사업자이메일 : 화순군수@naver.com

사업자주소 : 화순군 창궁면 창궁리 1155번지

사업자전화 : 055-379-3777

사업자fax : 055-379-3777

사업자이메일 : 화순군수@naver.com

사업자주소 : 화순군 창궁면 창궁리 1155번지

사업자전화 : 055-379-3777

사업자fax : 055-379-3777